“이절에 가면 장애인도 참배 문제 없어요”

장애인도 가기 좋은 절 어딜까?

사회 구조가 장애인편의 증진법 법률 제정,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조로 바뀜에 따라 사찰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의 인식에서 사찰은 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크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무한 것으로 인식돼 장애인의 불교 접근성을 막고 있다. 많은 사찰들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장애인이 전통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법당 참배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많음에도 홍보가 돼 있지 않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계, 사회복지계,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 포교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리수아래는 2022년 2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애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편의시설 답사 및 조사요원 1~3명이 팀을 구성, 전국 사찰 88곳을 방문조사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찰을 방문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찰의 편의시설을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적인 기준보다는 실제로 느끼는 체감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장애인도 가기 좋은 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김천 직지사 만세루로 향하는 길. 경사로 덕분에 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도 이동이 편리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등 이동 편의시설이 돼 있어 둘러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찰이 있다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장애 불자에게는 이동의 편의와 더불어 대웅전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부처님께 삼배의 인사를 드릴 전각이 하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턱이 없는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 전각마다 도움이 필요 시 도움을 청할 전화번호안내표지가 있는 서울 봉은사, 부산 홍법사, 고양 금륜사, 김포 연운사 등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사찰의 좋은 예이다.

국보나 보물, 지방의 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것들이 대부분인 전통사찰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사찰은 법당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를 둬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에는 법당 뒤편으로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무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국보나 보물, 지방의 지정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시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기에 더 반가운 일이다. **합천 해인사**의 대적광전과 관음전은 붙박이 경사로를 설치, 사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체장애인도 쉽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사찰 일부는 대부분 경내가 흙마당으로 점자나 유도블록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조계사**는 경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촉지도와 유도블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다. **서울 봉은사**의 경우, 설치가 힘든 대신 일주문에서부터 각 전각, 이동경로 등 20여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도움벨을 부착, 장애인의 사찰 이용 편의를 살피고 있다. 전화는 경비실과 종무소로 연결되며 호출 즉시 상근자가 대면해 도우미 역할을 하는 형태다. 종무소의 경우 장애인 전담은 아니지만 총무봉사연등 봉사자 15명이 교대로 상근하며 호출에 대한 안내를 돕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찰도 눈길을 끈다. **서울 상도선원**은 큰법당 앞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고 수원 수원사는 법당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부속건물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속리산 법주사** 템플스테이관의 엘리베이터형 장애인리프트도 여러 곳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 사찰 입구에 설치,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특히 **경주 황룡사지** 기념관은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이 있어 장애인 화장실로 가는 전용리프트를 설치해 눈길을 끈다.

지상 3층과 지하 1층 구조인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은 엘리베이터가 전 층에 있고 어느 곳에도 턱이 없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법당에 자유로이 들어가 참배도 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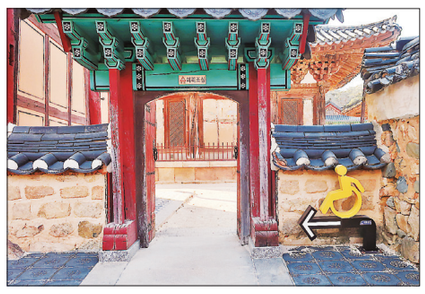
부산 홍법사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원형법당에 모셨다. 원형법당은 현대식 건물인 만큼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다. 외부에는 원형법당 둘레 여러 갈래에서 경사로가 나 있고 대웅보전도 턱이 거의 없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 참배하기 편하게 돼있다. 아미타대불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까이서 친견할 수 있다.

‘사찰서 불편’은 선입견일 뿐
대부분 사찰에 경사로 설치돼
문화재법 맞추어 간이 설치도

엘리베이터 · 유도블록 · 무턱
현대식 사찰은 ‘無장애 사찰’
장애인 편의시설 잘 갖추어져

고양 금륜사는 외부에서 1층 법당으로 들어오는 경사로와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출입구 쪽 낮은 턱과 홈이 있는 부분은 이동식 간이철판 받침대를 만들어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각 사찰에 시설이 잘 갖춰진 만큼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불자장애인들의 신행활동 지원과 포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동 경로가 표시된 통도사 경내.


황룡사지 기념관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해인사 대적광전에 마련된 경사로.



점자안내판과 블록이 설치된 서울 조계사.


법주사 템플스테이관의 엘리베이터형 리프트.



턱이 없는 서울 흥천사 전법회관.


서울 화계사 삼성각으로 향하는 계단 손잡이.


대구 동화사 약사여래대불 앞 엘리베이터.

불교 디자인 현수막 및 각종 불교 용품 판매

원하시는 크기,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3 불교카렌다 주문 받습니다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 (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723-4303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